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Interiority

Pimlott, Mark

Publication date
2023

Document Version
Final published version

Published in
Cities of the Room

Citation (APA)

Pimlott, M. (2023). Interiority. In N. Choe (Ed.), *Cities of the Room* (Vol. 4, pp. 161-181). Seoul Museum of Art.

Important note

To cite this publication, please use the final published version (if applicable).
Please check the document version above.

Copyright

Other than for strictly personal use, it is not permitted to download, forward or distribute the text or part of 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author(s) and/or copyright holder(s), unless the work is under an open content license such as Creative Commons.

Takedown policy

Please contact us and provide details if you believe this document breaches copyrights.
We will remove access to the work immediately and investigate your claim.

Green Open Access added to TU Delft Institutional Repository

'You share, we take care!' - Taverne project

<https://www.openaccess.nl/en/you-share-we-take-care>

Otherwise as indicated in the copyright section: the publisher is the copyright holder of this work and the author uses the Dutch legislation to make this work public.

방으로 간 도시들
Cities in the Room

목차 Contents

5	최나옥	방으로 간 도시들
14	임동근	보이지 않는 도시의 풍경
22	정다영	«방의 도시»에서 «방으로 간 도시들»
29	마크 핼롯	인테리어와 내면성
43	김홍중	미디어스케이프와 모바일 성찰성
62	권태현	방에서 만드는 미술, 방이 만드는 미술
68	전민지	방, 벙커, 군도: 전시 디자이너의 (공간) 표류기
81	김희천	뚜리또
85	정재경	공/터
89	최윤	방
92	한선우	세 개의 방: 미니룸, 라푼젤의 탑, 그리고 침수된 어느 낡은 지하실에 대하여
99		전시 도면 Floorplan
100		전시 사진 Photos
134	Nowk Choe	Cities in the Room
144	Dongkun Yim	The Landscape of the Invisible City
153	Dahyoung Chung	From <i>City of the Bang</i> to <i>Cities in the Room</i>
161	Mark Pimlott	Interiority
183	Hong-Jung Kim	Mediascape and Mobile Reflexivity
204	Taehyun Kwon	Art from the Room, Art by the Room
210	Minji Chun	Room, Bunker, Archipelago: Wandering Space of Exhibition Designers
225	Heecheon Kim	Turrito
230	Jaekyung Jung	Empty/Realm
234	Yun Choi	Bang
237	Sun Woo	Three Rooms: “Mini-room,” Rapunzel’s Tower, and an Old, Flooded Bunker
243		참여자 소개 Participants

본 전시와 출판물은 서울시립미술관 <2023
신진미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exhibition and publication is supported
by Seoul Museum of Art as part of Emerging
Artists & Curators 2023 Program.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실내 공간과 내면성¹

내면성과 내부의 상태

영어에서 ‘내적 성격’을 뜻하는 ‘interiority’라는 단어는 내면성과 개인적인 사유 상태를 가리킨다.² 이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종류의 자유’로 이어진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자유를 ‘인테리어’와 연관 짓고자 한다. 도시, 영토, 전 지구에 걸쳐 존재하는 인테리어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해방적인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의 상태를 가리킨다. 실내와 도시 공간 모두에서 만들어지는 인테리어를 다룰 때 ‘자유’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을 되찾는 것은, 특히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하거나 저항하는데 있어 시급한 문제다. 인테리어를 다루는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을 갖춰야 한다.

2016년 4월, 리처드 세넛은 하버드대학교 디자인 대학원에서 “실내 공간과 내면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³ 강연 시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테리어의 발전과 인테리어의 개념에 관해서였다. 설명에 따르면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실내 공간은 외부 세계와 특별히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생활 개념은 18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공 공간과 구별되며 형성되었다.

- 1 이 글은 2018년 『Interiority』 1호에 실린 「Interiority and the Conditions of Interior」을 재편집한 것이다.
- 2 Oxford English Dictionary: Interiority: inner character: “the profound interiority of faith”
- 3 Richard Sennett, *Interiors and Interiority*, lecture at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2016/04/22, <https://www.youtube.com/watch?v=hVPjQhfJfKo>



이에 따라 실내 공간은 점차 주관성이 변성할 수 있는 바깥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가 되어갔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가령 입는 옷차림의 경우, 사회나 직장처럼 공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위치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하는 반면, 사적인 영역인 실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꾸밀 수 있다. 세넷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와 같은 조건은 “개방성, 솔직함, 공유”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19세기 유럽 소설에서 실내 공간은 상상과 계시 혹은 암시와 환상의 영역이었다. 예컨대 조리스-카를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1884)는 환상과 과잉의 영역으로서의 실내 공간을 보여준다. 소설의 주인공 데 제썬트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음으로써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창조해 낸다. 여기에서 실내 공간이란 끊임없이 펼쳐지는 자아실현의 시도를 담아냈으며,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내부 상태를 만들어 냈다.

이어서 리처드 세넷은 게오르그 짐멜의 에세이 「대도시와 정신적 삶」(1903)를 빌어 ‘내면성’을 설명했다.⁴ 짐멜에 따르면 개인의 주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집이나 공동체가 아니라, 과도한 자극으로 가득한 ‘거리’다. 대도시 시민들은 거리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무관심한 행동으로 이에 대응했다. 거리와 타인에 노출되면서 생겨난 감정과 생각이 바로 주관성, 개성, 그리고 내면성이라는 것이다. 짐멜은 복잡다단한 외부 상황을 관찰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이 바로 ‘도시적 주체’라고 말했다. 대도시에서는 가정에서 요구받는 일과 같은 타인의 간섭은 일어나지 않았다. 거리 속에서 대도시 시민들은 타인으로부터 분리되어 사색을 취했고, 어느 상호작용 없이 외부 조건을 관찰하면서 일종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반면, 가족이나 친숙한 소규모 공동체에 묶여 있는 ‘실내 공간’에서는

4 Georg Simmel,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Classic Essays on the Culture of Cities*, Richard Sennett,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9): 47-60

이러한 자유가 유지되기는 커녕 억압되었다. 청년들은 마을이나 교외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얻는 이동, 결사, 행동의 자유는 곧 개인의 자유로 이어진다. 가정을 이루는 친밀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은 개인이 따라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자리하며 ‘내부의 상태’를 형성했다.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내면성을 느끼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짐멜에게 있어 내면성과 자유는, 가정 환경과 도시 환경으로부터 생성되는 내부 상태에 대한 방어책으로 작동한다.

세넷의 강연은 일련의 개념들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세넷은 개인에게 존재하는 ‘내면성’이라는 개념이, 친숙하고 가정적인 실내 공간과 관련이 있든, 삭막한 대도시와 관련이 있든 간에 환경으로부터 영향받는 상태라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이 글에서 나는 ‘인테리어’가 갖는 의미를 확장하고, 여러 반복적인 비유를 요구하는 ‘내면성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일전에 나는 북미 대륙의 ‘내부화’를 다루는 글을 통해 식민지를 만드는 수단과 장치가 내부성의 조건을 만들어 낸다고 썼다.⁵ 돌이켜보면 식민지화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내부성’이라는 용어보다는 ‘내부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했을 것 같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런 사례들은 종종 발견될 것이다. 오늘날 자유방임주의란 당시 식민지화 과정의 연장선에 있으며, 실제 다른 도시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철학자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자본의 세계적 내부’라고 지칭했던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작동으로부터 일련의 내부 상태가 만들어지는 중이다.⁶

개인의 내면성은 내부 상태에 대응하는 어떠한 수단이다. 내면성에 기반하는 자유는 주변 환경에 대해 숙고하는 힘을 지닌다. 그렇기에 많은

5 Mark Pimlott, *Without and Within: Essays on Territory and the Interior* (Rotterdam: Episode, 2007)

6 Peter Sloterdijk, transl. Wieland Hoban, *In the World Interior of Capital* (Cambridge: Polity Press, 2013). Originally published as *Im Weltinnenraum des Kapitals*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2005)

작가들과 사진가들은 도시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대도시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만든 바 있다. 예를 들어 발터 벤야민은 『아케이드 프로젝트』(1927-1940)에서 ‘파리’라는 대도시를 해석하기 위해, 19세기 근대성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더불어 도심 내 아케이드와 가로의 여러 모습을 탐구했다.⁷ 또, 기 드보르의 『파리의 심리지리학 가이드』(1957)는 각종 경험들과 분위기를 재료 삼아 도시를 재구성했다.⁸ 최근 사례 중에는 도시를 걸어 다니며 마주하는 장면과 거리를 통해 런던이라는 도시를 재구성한 이안 싱클레어의 『도시를 위해 불을 끄다』(2003)와 『마지막 런던』(2017) 같은 책이 있으며⁹, 마찬가지로 ‘로빈슨 시리즈’로 런던의 문제를 다룬 영화감독 패트릭 켈러¹⁰는 ‘급진적 주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신의 재구성 방식을 통해 ‘도시’가 개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고 말했다.¹¹

일련의 해석들은 도시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내러티브와 역사가 내재한 곳으로 ‘개인이 직접 만들어 가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심리지리학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루는 유형학과 사진과 관련이 깊다.¹² 미국 사진계의 거장 스테판 쇼어는 “카메라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드러내는 기술적 수단”이라며, “나는 주의력을 가지고 일상 세계를 유심히 관찰하는 방식에 관심을 지닌다”고

- 7 Howard Eiland, Kevin McLaughlin (translation of Walter Benjamin, *Das Passagen-Werk*, ed. Rolf Tiedemann, 1982) *The Arcades Project: Walter Benjamin* (Cambridge MA/ London: Bel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8 Guy Debord, collage, *Guide psychogéographique de Paris: discours sur les passions de l’amour* (1957)
- 9 Ian Sinclair, *Lights Out for the Territory* (London: Penguin, 2003); *The Last London* (London: Oneworld, 2017)
- 10 Patrick Keiller, *London* (UK: BFI Production/ Koninck Studios, 1994)
- 11 Patrick Keiller, *The View from the Train: Cities and Other Landscapes* (London: Verso, 2014)
- 12 Stephen Shore, *Biological Landscape: The Photography of Stephen Shore 1969-79*, New York: International Centre of Photography, 11 May-9 September 2007; *American Beauty: The Work of Stephen Shore* (DVD, 2006)

말했다.¹³ 쇼어의 작업에서 사진은 세상이 드러나는 어떠한 순간이자 상태의 기록으로, 이는 사진작가와 관객 모두의 깊은 내면성에 가 닿는다. 도시는 이와 같은 주관적인 해석과 여정, 이미지를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보다, 세계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대都市는 건축물이나 풍경, 인테리어 등 곳곳의 다양하고 상호의존적인 표현들이 형성하는 수많은 해석과 연결로부터 만들어지는 장소다.

도시 안에서 생겨나는 내면성이란 집단적인 경험에 대항하는 어떠한 가능성이다. ‘도시’는 결국 자본과 권력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가리키는 ‘내면성’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내면성이 내포하고 있는 ‘자유’는 도시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 이를 위해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건축가들은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좀더 의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만 한다. 오늘날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내부 상태’를 이해하는 한편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풍요와 자유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부 공간의 조건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거느리는 제국들은 ‘내부 조건’을 건드림으로써 다른 영토를 통제하고, 토착민들을 지배하거나 제거했으며, 그곳의 자원을 소유했다. 예컨대 로마의 전초기지인 ‘팀가드(Timgad)’는 내부의 조건을 다루는 방법을 보여준다. 로마 제국은 세상과 구별되도록 땅에 경계를 긋고, 이러한 경계에 기반해 정치, 예배 등 다양한 공간적 질서를 만들었다.¹⁴ 이를 통해 설령 성벽이 없더라도 내부로서의 상태가 유지될 수

- 13 Stephen Shore, *American Surfaces* (1972)(London: Phaidon, 2008); *Uncommon Places* (1982)(London: Thames & Hudson, 2004); William Eggleston, John Szarkowski, *William Eggleston’s Guide* (1976)(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2002)
- 14 Joseph Rykwert, *The Idea of a Town: The Anthropology of Urban Form in Rome, Italy and the Ancient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있었고, 로마 제국의 여러 의식과 규범들은 이 안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은 아시아, 지중해, 북유럽 등 멀리 떨어진 지역을 정복할 때 이 전략을 사용했다. 이러한 전초기지들은 병력 배치와 다른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 더욱 공고한 로마의 영토가 되어갔다. 주요 도로의 끝에는 로마 본국과 마찬가지로 ‘카르도(Cardo)’와 ‘데크마누스(Decumanus)’라고 불리는 출입구를 세웠으며, 포럼과 기념물, 신전, 극장, 목욕탕 등 로마의 이념을 대표하는 건물들이 머나먼 정복 지역에 만들어졌다. 이렇듯 로마는 내부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을 활용했다. 하나는 땅 자체에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률이나 네트워크 등 추상적인 것이었다.¹⁵

로마가 식민지를 다루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실제 로마가 조직되는 방식이 아닌 제국을 대표하는 이상화된 구조를 따랐다.¹⁶ 이러한 정착지 형태는 로마 이후 16세기 19세기 유럽의 식민지 개척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은 무역과 군사뿐 아니라 인종 대학살이나 노예제까지 활용하여 일련의 ‘내부화’를 만들어 냈다. 다른 열강들에 대한 우위와 토착민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식민지 기지에는 실용주의와 이상주의 모두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설치된 동인도회사는 제국의 핵심을 식민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듯 열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식민지에 각종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식민지의 자원과 인력 등을 착취했으며 그곳의 질서를 유지했다. 식민 지배가 장기화될수록 현지인들의 노동력과 식민지의 자원 관리는 중요했는데, 이때 현지 주민들과 식민지 점령자들이 뒤섞이며 만들어지는 ‘내부 상태’는 식민 지배를 유지시키는 주요한 방법이었다.

15 Andrea Branzi, *Weak and Diffuse Modernity: The World of Projects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Milan: Skira, 2006)
16 Daniel J. Gargola, *The Shape of the Roman Order: The Republic and Its Spaces*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7)

미국 서부를 식민화할 때는 자본, 산업, 정책, 군사 모든 분야를 고려해 만든 ‘공간적 조건’이 있었다.¹⁷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 설계 형식은 지금도 얼마든지 나타난다. 렘 콜하스가 ‘정크스페이스(Junkspace)’라고 지적한 쇼핑몰의 연속적인 내부 공간처럼^{18, 19}, 이러한 ‘미국적 공간’들은 전 세계 공공 인테리어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비즈니스 이해관계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상업적 필요에 따라 사회의 총체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영국이 미국을 식민화할 당시, 영토를 제대로 알기 전부터 땅을 케이크 조각처럼 나누어 모든 것을 수탈하는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말이다.²⁰

1785년 토마스 제퍼슨의 ‘공유지 조례’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땅을 그리드로 나누는 방식은 추상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는데, 이에 따라 부동산의 경계, 행정구역의 배치와 관계, 건축에 필요한 재료 측정과 치수가 결정되었다. 추상적인 시스템은 곧 법률이 되어 기계처럼 작동했으며, 미지의 지형과 인구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용됐다. 땅은 그저 그리드로 구분될 뿐이었다. ‘백지(Tabula Rasa)’라는 개념에서 비롯하는 이 시스템의 진행을 위해 원주민들은 제거되어야 했으며, 여기에서 고려하는 것은 오직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유럽계 백인들을 정착시키는 일밖에 없었다. 천연자원이 필요하거나 토지를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을 위해서라면 정부의 군사력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원주민을 내쫓았다.

‘자영 농지법’은 원주민들을 내쫓아 얻은 토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865년 시행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미국적 공간’은 노동을 통해

17 Mark Pimlott, *Without and Within: Essays on Territory and the Interior* (Rotterdam: Episode, 2007)
18 *Variations on a Theme Park: The New American City and the End of Public Space*, Michael Sorkin, ed., (New York: Noonday Press, 1992)
19 Rem Koolhaas, *Junkspace*, in Nobuyuki Yoshida [ed.], Rem Koolhaas, *OMA@work: Architecture and Urbanism*, May 2000 Special Issue (Tokyo, A+U Publishing, 2000)
20 Catherine Maumi, *Thomas Jefferson et le projet du Nouveau Monde* (Paris: Éditions de la Villette, 2007)

소유되며, 타인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개념도 정립되었다. 오늘날 외국인이나 정부, 또는 노예에 대항하여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의 근원이 여기 있는 것이다. 대륙의 물리적 특성은 신화적인 이미지로 변형되었으며, 그리드는 추상적이면서도 물리적인 존재로서 일련의 네트워크에 대한 표현을 함축했다. 어떤 측면에서 이는 원주민과 그들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것이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내부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갱신하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내는 일이었다.

19세기 후반, 미국이라는 땅은 하느님이 유럽 백인들을 위해 만든 ‘정원’이라고 여겨졌다. 일종의 운명론에 기반한 이 이데올로기는 식민지를 점령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이후 노동을 통해 새로운 땅을 일궈내는 ‘자아실현’이라는 가치관으로 이어졌다. 추후에 그리드 시스템은 자유방임주의와 결합되면서 다른 도시화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며 마찬가지로 수순을 이어 나갔다. 미국의 도시 배치, 교외 확산, 도로망의 분포, 쇼핑몰, 카지노, 공항, 호텔, 사무실 등에서 우리는 도시화와 이에 따른 내부 상태의 면면을 살필 수 있다.

이들은 광고나 텔레비전, 영화에서 이상적으로 묘사되면서 더욱 폭넓게 전달되었다. 피렌체 기반의 건축가 그룹 슈퍼스튜디오와 아키즘의 ‘연속적인 기념비(Continuous Monument)’와 ‘멈추지 않는 도시(No-Stop City)’는 이러한 상태를 묘사하는 작업들이다. 기존 상태에 관한 해석 없이 기념비적으로 덧붙은 그리드 형태는 도시의 모든 활동들을 내포하는 총체적 환경이었다.²¹ 연속적인 내부 상태를 만드는 ‘미국식 공간’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를 개발하고, 그곳의 내부 환경을 만들 때도 줄곧 적용된다. 특히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따라 개발된 동남아시아의 도시는 외관이나 그곳에 사는 개인들의 주체성 모두에서

미국의 선례를 따른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동 규범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투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정상적이며 공공적인 상태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소비의 자유와 자아실현이 곧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이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자유는 앞서 언급한 대도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자유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오스만 남작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19세기 대도시 파리에서는 개인의 내면성과 그에 따른 자유가 가능했다. 오스만 남작은 파리의 구석구석에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대로, 거리, 지하구조물, 건물, 길가에 설치된 비품 등 수많은 요소를 통해 만들어진 도시는 마치 거대한 기계와 같았다. 건물은 사회 계층을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수용했으며, 거리는 식재나 도로들과 통합되어 위생, 편의, 공공성을 도모했다. 하수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폐기물을 배출하였으며, 도시 전체를 횡단하는 지하 철도는 신속한 교통을 가능하게 했다. 넓게 설계된 도로는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경찰과 소방, 군용 차량의 이동을 원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익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 기계처럼 완전하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을 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다.

귀스타브 카이보트(1848-1894)의 그림 속 사람들은 발코니나 길가, 창문에 서서 도시의 광경을 관찰하고, 나아가 도시를 소유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길가를 거닐고 일을 하는 그림 속 사람들은 마치 전체 도시나 풍경이라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대 생활의 증인을 자처한 화가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속에서 개인은 대도시에 압도되거나 소외되는 모습도 내보였다. 대도시를 이루는 수많은 군중과 움직임, 불빛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방향 감각이 상실되고, 정신적인 충격이 잇따르는 탓이다.²²

21 *Super Superstudio*, Andreas Angelidakis, Vittorio Pizzigoni, Valter Scelsi, eds.(Milan: Padiglione d'arte contemporanea/ Silvana Editorial, 2015); *Exit Utopia: Architectural Provocations 1956-1976*. Martin van Schaik, Otakar Mácel, eds., (Munich: Prestel, 2005); Andrea Branzi, op.cit.

22 Susan Buck-Morss, *Aesthetics and Anaesthetics: Walter Benjamin's Artwork Essay Reconsidered*, Rosalind E. Krauss [et al.] *October: The Second Decade, 1986-1996*(Cambridge MA, MIT Press, 1997); Joachim Schlör, transl. Pierre Gottfried Imhof and Daffydd Rees Roberts, *Nights in the Big City* (London, Reaktion Books, 1998)

리차드 세넷은 게오르그 짐멜을 인용하며, 대도시 경험은 개인을 내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도시는 ‘시장 집단’의 대표로서 개인의 참여를 요구하기에, 도시에서 수반되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공공성과 스펙터클, 나아가 개인의 삶과 관계를 다루는 통제권에 개입하는 기술까지,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도시적 구조와 효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이 내부 조건을 작동시키는 데 일조하는 하층민의 삶에 머문다.²³

세넷이 현대 도시에 대한 대응으로 짐멜의 논리를 인용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거리에서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교류하는 가치에 주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는 세넷의 스승인 한나 아렌트가 ‘현상의 공간(space of appearance)’이라고 명명한 것을 연상하게 한다.²⁴ 세넷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바라보지면서 개인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조한다. 도시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지가 세넷의 관심사다. 내면성과 내면성에서 비롯하는 자유, 그리고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자아도 이러한 가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련의 가치는 신자유주의나 권위주의에서 만들어지는 강압적인 내부의 조건들과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장치들, ‘스마트’ 기술을 통해 개인의 욕망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해독제가 되어준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은 ‘공공의 내부 공간’을 다룰 때 ‘내면성’이 지니는 가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공의 내부란 소유권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적 가치와 시민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드러낸다. 아렌트의 말을 다시 빌리자면,

23 Ben Judah, *This is London: Life and Death in the World City* (London: Picador, 2016)

24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secon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은 공공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 ‘현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공공의 내부 공간은 단지 도시의 스펙터클을 위하거나,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게끔 설계될 필요가 있다. 다른 역사적 사례들이 보여주듯, 이러한 내부 공간에서 개인은 자아로서, 타인으로서, 다른 자아들 사이의 자아로서, 특별한 자아로서 존재하고, 행동하며, 관계를 맺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위치를 의식할 수 있는 무대로 역할하는 것이다.^{25, 26} 이곳에서 사람들은 다른 권력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내면과 익명성의 자유를 누린다. 현재의 경험을 강화하거나 현재와 과거의 조화를 이루면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공공의 내부 공간은 세계 시민들이 물질문화 속 저만의 자리를 갖도록 해준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범적인 사례를 꼽자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다양한 국가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 그대로 내부 공간이거나, 내부 공간을 제안하는 프로젝트다. 복스를 플레저 가든스(1650s-1859)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는 곳으로, 후에 세드릭 프라이스의 편 팰리스 프로젝트(1960-1964)에 영향을 주었다. 전폭적인 소비와 쾌락을 위해 고안된 봉 마르세나 갤러리 라파예트와 같은 대형 백화점에는 고급 소비자부터 점원 같은 다양한 사회 계층이 모였다.²⁷

독일 분단 시기 동베를린에 있던 공화국궁(1976;1998-2006)²⁸도 빼놓을 수 없다. 독일 통일 이후 사람들은 이념적인 표상이 사라진 이

25 Sebastiano Serlio, *Regole generale di architettura* (libro II)(1545), *Scena Satirica; Scena Comica; Scena Tragica*

26 Hannah Arendt, op.cit.; George Baird, *The space of appearance* (1992), *Metropolitan Mutations: The Architecture of Emerging Public Spaces*, Detlef Mertens, ed.(Little, Brown and Co.: Toronto 1989): 135-152

27 Emile Zola, *Au Bonheur des dames* (1883)

28 Andreas Ulrich, *Palast der Republik: Ein Rückblick/ A Retrospective* (Munich: Prestel Verlag, 2006)

거대한 구조물에 모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겼다. 리나 보 바르디가 설계한 상파울루 현대미술관은 서커스, 콘서트, 시위, 전시회 등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의 보금자리로, 예술 작품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건축물로 여겨졌다. 보 바르디가 설계한 또 다른 건물인 상파울로의 워크샵 극장은(1984) 건물이라기보다는 거의 복도나 길가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비계로 만들어진 갤러리는 무대에 맞닿아 있었는데, 일부는 유실되어서 공간 안에 있는 나무와 함께 인접한 공원을 마주하는 효과적인 전망대이기도 했다. 역시 보 바르디가 설계한 SESC 폼페이아(1978-86)는 공장을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한 곳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 휴식,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²⁹

프랭크 반 클링게렌이 기존 창고를 유리로 덮어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드 미르팔(1967)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쇼핑, 연극 관람, 예술작품 감상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폰투스 হল텐은 대중이 주체가 되는 문화 공간을 만드려는 시도를 계속해낸 인물이었다. 그는 스톡홀름 근대미술관부터 페테르 셸싱이 설계한 컬처하우스(1976)까지 사람들에게 각종 문화 활동과 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제안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이상은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한 파리 퐁티두 센터(1977) 설계로 이어져, 이 건축물이 도시와 연결되어 수많은 활동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데니스 레스던이 설계한 영국 런던의 국립 극장(1976)도 공연을 관람하는 데 국한되기보다, 공연 너머 도시와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라카통 바살이 리노베이션한 팔레 드 도쿄(2001)는 사람들이 새로운 예술을 생각할 수 있는 비워진 공간이었으며, 로브레히트와 뎀이 마리 호세 반 희와 함께 작업한 스타드샬(2010)은 거대한 지붕이 특징인 건축물로, 지붕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벽난로를 넣어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처럼 도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이들 장소 속에서, 개인은 사람들과 뒤섞이는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다. 이 장소들은 일방적인 힘의 논리 대신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곳 또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들이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현재 머무는 곳 너머의 다른 시간과 공간을 암시하는 물리적 특징들을 통해, 장소에 대한 사유와 개인의 내면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이 모범적인 사례들은 현재와 과거 모두에 속해, 자신만의 내부 상태를 구성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내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성취한다.